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김소라¹ 신나나²

Sora Kim¹ Nana Shin²

ABSTRACT

Objectiv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on three types of social behavior, prosocial, aggressive and withdrawn behavior.

Methods: A total of 299 mothers and their preschool-aged children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at included measures of their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nd social behavior.

Results: First,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had a 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and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had direct effects on preschoolers' aggressive and withdrawn behavior. Second,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had indirect effects on preschoolers' prosocial, aggressive and withdrawn behavior through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In contrast, indirect paths from maternal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o social behavior through preschoolers' execution function were not significant.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executive function during early childhood and suggest the need for effective parenting programs to promote executive function.

key words: parenting behavior, social behavior, executive function

*본 논문은 2020년 이화여자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375).

¹ 제1저자

이화여대 아동학과 석사졸업생

² 교신저자

이화여대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nanashin@ewha.ac.kr)

I. 서론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그 안에 속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 유아기는 사회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로(Green & Baker, 2011),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상호작용 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이 시기 핵심적인 발달과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유아들이 과거보다 더 이른 시기에 더 오랫동안 가정 외 보육을 경험하는 현대 사회에서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

을 위한 사회적 행동 및 기술을 익히는 것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행동은 다양한 환경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이는 개인의 행동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박명호, 2000),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뿐 아니라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인 공격적 행동, 그리고 비사회적 행동인 위축된 행동을 사회적 행동에 포함하였다(LaFreniere & Dumas, 1996). 각각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고자 의도된 자발적 행동을 뜻하며(Eisenberg, Fabes, & Spinard, 2006), 공격적 행동은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로 나타나는 행동이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위축된 행동은 타인과 상호작용하지 않거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몰입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Hart, Newell, & Olsen, 2003). 이 시기 사회적 행동은 유아기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Ladd & Burgess, 2001),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적절한 개입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가정, 특히 유아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Eisenberg & Valiente, 2002; Rubin & Burgess, 2002).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박남심, 송승민, 엄희경, 2020; 우수정, 2016; Clark & Ladd, 2000), 그리고 권위적이며 합리적인 제한을 하는 양육행동을 제공할수록(이미현, 2009; 정경화, 2004)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고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은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김녹현, 정영주, 차선희, 2014; LaFreniere & Capuano, 1997) 유아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성이 낮거나 과잉간섭을 많이 할수록(김중훈, 성지현, 2014; 유숙경, 이승희, 2012) 유아는 우울감이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위축된 행동을 더 보이며, 친사회적 행동의 수준이 낮았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양육행동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살펴보는 연구들 또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실행기능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된 변인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거나 사고를 조절하는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을 뜻한다(Zelazo & Müller, 2002). 실행기능은 다양한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Diamond, 2013),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실행기능 척도를 개발한 Isquith, Gioia 그리고 Espy(2004)의 제안에 따라 억제, 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 및 조직화를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실행기능이 높을 경우 타인이 보이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반응을 억제하고 전환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 행동은 더 보이고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은 덜 보이게 된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행기능이 높은 유아는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능력이 높고(Izard, Stark, Trentacosta, & Schultz, 2008),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적응적이고 친사회적 대안을 생각해내며(Hughes & Ensor, 2009), 또래들과 잘 어울리는 경향을 보인다(Blair & Razza, 2007). 반면에 실행기능 수준이 낮은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덜 보이고

(공영숙, 임지영, 2012),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Hughes, 1998). 또한 실행기능이 낮은 유아는 분노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더 보이고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더 보였다(Toren et al., 2000).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실행기능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게 하고, 공격성이나 위축행동을 덜 보이게 하는 기능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되었는데(Perry, Kusel, & Perry, 2010), 이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경험과 자극이 실행기능의 발달과 관련이 되는 전두엽의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Kolb et al., 2012).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비계를 설정할수록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과제에서 유아가 우수한 수행을 보였으며(Lucassen et al., 2015), 온정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율성을 지지하는 어머니의 양육은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때문에 실행기능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지현, 신나나, 2017; 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Bernier, Carlson, & Whipple, 2010). 반면에,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실행기능 중 억제와 작업기억 과제에서의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차기주, 2015; 황혜련, 송현주, 2013), 어머니가 적대적이거나 과보호적일수록 유아는 낮은 실행기능을 보였다(Graziano, 2009).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온정적이고 논리적 설명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을 촉진하지만, 강압적이고 통제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아기 실행기능에서의 개인차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 시기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행기능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일수록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이 높고, 높은 실행기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고 공격적이고 위축된 행동은 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러한 가정을 검증한 연구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실행기능이 매개하였으며(공영숙, 임지영, 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서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란희, 김선희, 2017). 위축된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지만, 이와 유사한 연구로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통해 불안 및 위축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Leod, Wood, & Weisz, 200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행기능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유아기는 보육/교육기관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경험하는 등 사회적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이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복잡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실행기능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사회적 행동의 일부를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사회적 행동인

친사회적 행동과 부정적 사회적 행동인 공격적 행동과 위축행동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실행기능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여섯 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와 어머니 299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 보고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유아와 어머니를 선정할 이유는, 유아기는 실행기능이 급격하게 발달하고(신은수, 2005), 기관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행동이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Green & Baker, 2011). 또한 이 시기 사회적 행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발달하며, 특히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고, 사회화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강기숙, 이경남, 2001), 유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유아의 성별은 남아 142명(47.5%), 여아 157명(52.5%)이었으며, 연령은 만 3세 80명(26.8%), 만 4세 87명(29.1%), 만 5세 132명(44.1%)으로 만 5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많았다. 출생순위는 외동이 96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둘째 91명(30.4%), 첫째 84명(28.1%), 셋째 이상 28명(9.4%) 순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30대가 153명(51.2%)과 200명(66.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35명(45.2%)과 92명(30.8%)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각각 186명(62.2%)과 164명(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각각 59명(19.7%)과 71명(23.7%)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99)

변인	빈도(명)	비율(%)	변인	빈도(명)	비율(%)
성별			출생순위		
남아	142	47.5	외동	96	32.1
여아	157	52.5	첫째	84	28.1
연령			둘째	91	30.4
만 3세	80	26.8	셋째 이상	28	9.4
만 4세	87	29.1			
만 5세	132	44.1			

표 1. 계속

변인	빈도(명)	비율(%)	변인	빈도(명)	비율(%)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20대	1	0.3	20대	5	1.7
30대	153	51.2	30대	200	66.9
40대	135	45.2	40대	92	30.8
50대	10	3.3	50대	2	0.7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22	7.4	고등학교 졸업	25	8.4
전문대 졸업	32	10.7	전문대 졸업	39	13.0
대학교 졸업	186	62.2	대학교 졸업	164	54.8
대학원 이상	59	19.7	대학원 이상	71	23.7

2. 조사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이선희(2012)가 개발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나지혜(2012)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긍정적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온정(9문항)과 논리적 설명(10문항), 그리고 부정적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개입(9문항), 강압(7문항), 방임(10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온정의 경우 ‘아이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등이 있으며, 논리적 설명은 ‘아이에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등이 있다. 개입은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한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강압은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벌을 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방임의 경우 ‘어른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식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온정 .84, 논리적 설명 .91, 개입 .90, 강압 .87, 방임 .75이었다.

2) 유아의 실행기능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Gioia, Isquith, Guy 그리고 Kenworthy(2000)가 개발한 5~18세 아동용 실행기능 행동평정척도(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Preschool version)를 유아용으로 타당화한 실행기능 행동평정척도-유아용(BRIEF-P)(Isquith et al., 2004)을 서정은과 박혜원(201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3문항으로, 억제, 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 및 조직화의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억제(16문항)의 경우 ‘지시를 해도 행동을 억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 등이 있으며, 전환(10문항)은 ‘새로운 장소나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조절(10문항)에는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활동에서 쉽게 압도되거나 너무 흥분한다.’ 등

의 문항이 포함되며, 작업기억(17문항)에는 ‘잠시만 지나도 어떤 것을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계획 및 조직화(10문항)의 경우 ‘명확한 지시를 주어도 방이나 놀이공간에서 물건을 찾지 못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이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능이 낮은 것을 의미하도록 서술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실행기능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억제 .93, 전환 .88, 감정조절 .90, 작업기억 .94, 계획 및 조직화 .88이었다.

3) 유아의 사회적 행동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aFreniere와 Dumas(1996)가 개발한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평가 척도(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SCBE]) 간편형을 권연희(2003)가 번안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긍정-친사회적 행동(10문항), 분노-공격적 행동(10문항), 불안-위축된 행동(10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긍정-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어려움에 처한 다른 유아를 위로하거나 도와준다.’ 등이 있으며, 분노-공격적 행동에는 ‘다른 유아를 때리고 물거나 찬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불안-위축된 행동의 문항의 예로는 ‘슬프고, 행복하지 않거나 우울하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평소에 유아가 보인 행동을 근거로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6점)’까지의 6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긍정-친사회적 행동 .88, 분노-공격적 행동 .87, 불안-위축된 행동 .73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를 위한 자료는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6곳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집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고, 교사들이 유아의 가정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유아의 어머니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수된 314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후, 299부에 대해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3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이하라는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여(Kline, 2015), 총 299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및 위축된 행동 각각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 상관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표 2),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 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온정과 논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과 친사회적 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공격적 행동과 위축된 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개입, 강압 및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과는 부적 상관을, 공격적 행동과 위축된 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개입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299)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어머니의 양육태도													
1. 온정	-												
2. 논리적 설명	.55***	-											
3. 개입	-.28***	-.18**	-										
4. 강압	-.41***	-.29***	.42***	-									
5. 방임	-.04	-.13*	.10	.24***	-								
실행기능													
6. 억제	.37***	.32***	-.22***	-.32***	-.20***	-							
7. 작업기억	.19***	.25***	-.19***	-.15**	-.17**	.61***	-						
8. 전환	.32***	.28***	-.28***	-.29***	-.16**	.71***	.74***	-					
9. 감정조절	.34***	.35***	-.16**	-.27***	-.19**	.87***	.65***	.68***	-				
10. 계획조직화	.30***	.32***	-.18**	-.25***	-.19***	.82***	.67***	.65***	.90***	-			
사회적 행동													
11. 친사회적 행동	.25***	.28***	-.12*	-.10	-.03	.38***	.37***	.31***	.42***	.46***	-		
12. 공격적 행동	-.33***	-.25***	.23***	.32***	.16**	-.68***	-.53***	-.75***	-.60***	-.56***	-.31***	-	
13. 위축된 행동	-.20***	-.30***	.13*	.26***	.34***	-.41***	-.41***	-.27***	-.34	-.36***	-.25***	.49***	-
M	3.20	3.27	2.07	1.58	1.10	3.46	3.35	3.34	3.47	3.39	3.76	1.20	0.94
SD	0.42	0.44	0.54	0.51	0.21	0.46	0.50	0.52	0.45	0.45	0.68	0.78	0.27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 및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는 χ^2 값과 χ^2/df , CFI(Comparative Fit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평가하였다. 적합도 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χ^2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하고, χ^2/df 는 3보다 작을 때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χ^2 의 값은 표본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Kline, 2015).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 중에서 CFI, TLI, NFI, GFI의 값은 .90 이상일 때 적합하며(홍세희, 2000), RMSEA는 .05 이하일 때 적합하고, .08 이하일 때 양호하며(Browne & Cudeck, 1992), .10 이하일 때 보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Steiger, 1990).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실행기능과 사회적 행동의 네 가지 잠재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속변인인 사회적 행동 각각에 따라 세 가지 모형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행동에 포함되는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위축된 행동 각각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므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3개의 묶음을 구성하였다. 문항묶음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측정오차가 커질 수 있으며(Kline, 2015), 개별문항보다 문항묶음을 사용하는 것이 모형적합도가 더 안정적이라는 선행연구(이지현, 김수영, 2016)에 근거하였다. 문항묶음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부하량이 큰 문항과 작은 문항을 묶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각 잠재변인별로 3개의 지표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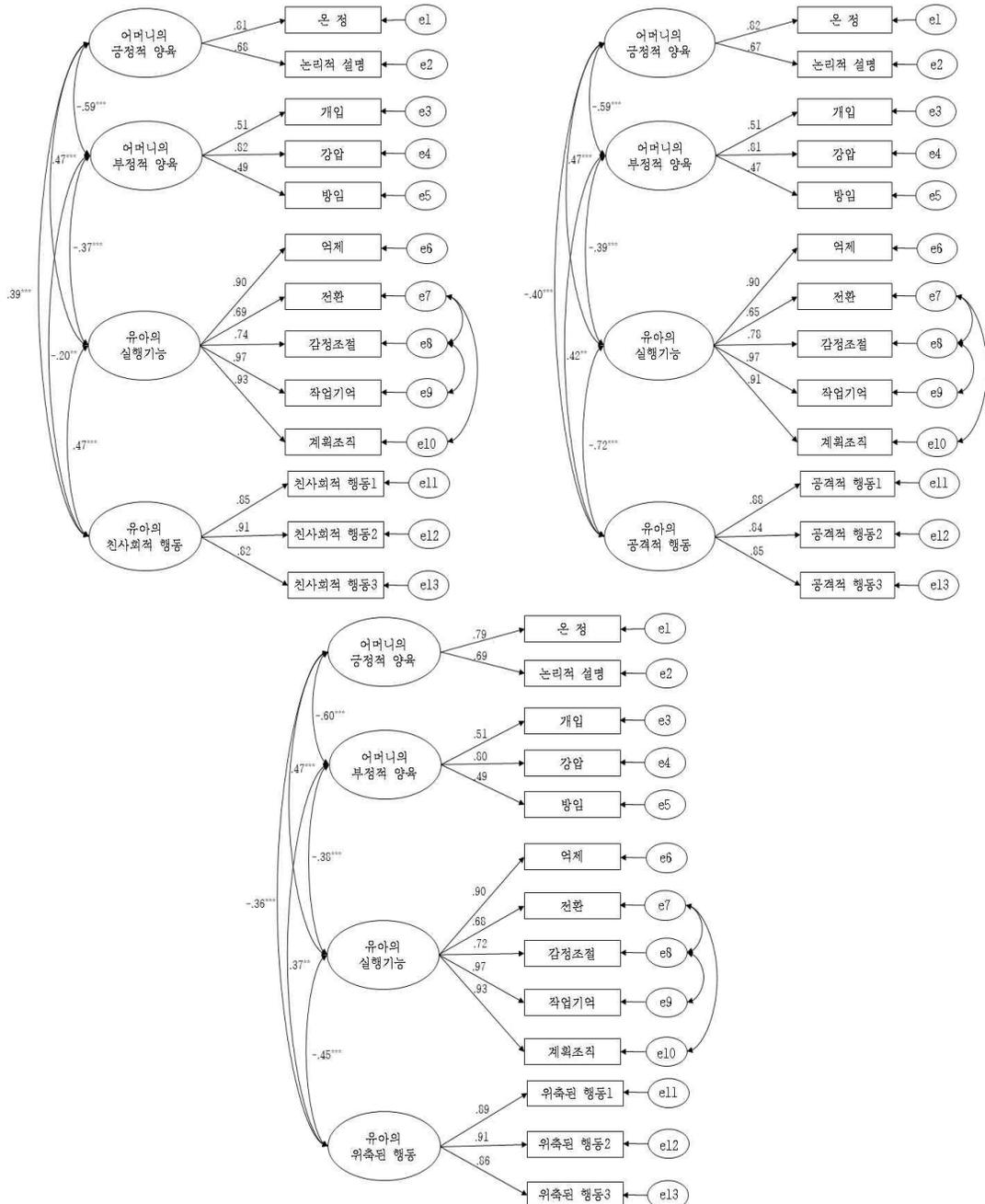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 모형, 공격적 행동 모형, 그리고 위축된 행동 모형 모두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지 않아(표 3),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수정지수가 4 이상인 측정변인들의 오차 공분산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수정모형은 모든 모형에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표 3). 또한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표준화 회귀계수(β)가 .47 ~ .97이고,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299)

측정모형	χ^2	df	χ^2/df	CFI	GFI	NFI	TLI	RMSEA (LO90-HI90)
친사회적 행동 모형	초기	224.74***	59	3.81	.93	.90	.91	.10 (.08, .11)
	수정	123.18***	56	2.20	.97	.94	.95	.06 (.05, .08)
공격적 행동 모형	초기	322.02***	59	5.46	.90	.86	.88	.12 (.11, .14)
	수정	209.13***	56	3.73	.94	.91	.92	.09 (.07, .10)
위축된 행동 모형	초기	263.62***	59	4.47	.91	.88	.88	.11 (.10, .12)
	수정	156.62***	56	2.80	.97	.93	.94	.07 (.06, .09)

주) 모든 모형에서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인 전환-작업기억, 전환-계획조직, 그리고 작업기억-감정조절의 오차항 간 공분산을 연결하였음.

*** $p < .001$.



주)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표준화 회귀계수(β)는 $\alpha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음.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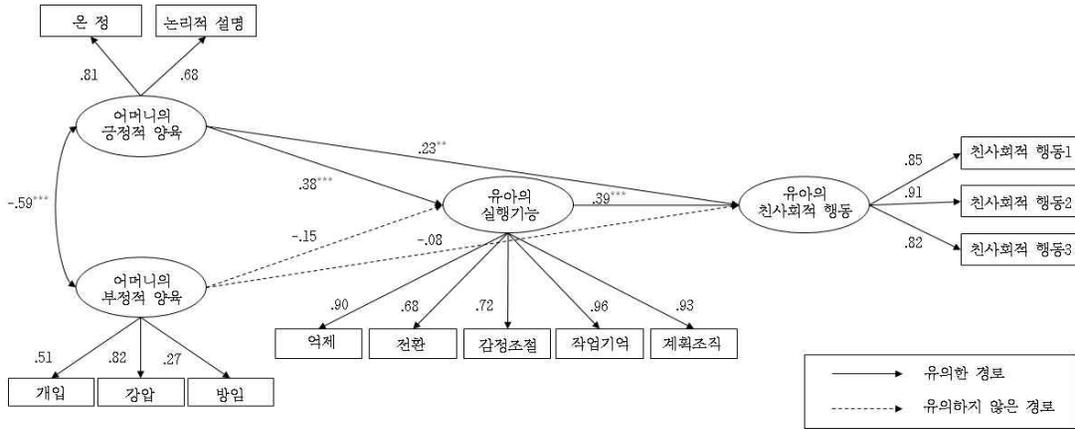
그림 1.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위축된 행동의 모수 추정치

3. 구조모형 분석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 모형($\chi^2 = 123.18(df = 56, p < .001)$, $\chi^2/df = 2.20$, GFI = .94, NFI = .95, TLI = .96, CFI = .97, RMSEA = .06(90% CI = .05, .08), 공격적 행동 모형, $\chi^2 = 209.13(df = 56, p < .001)$, $\chi^2/df = 3.73$, GFI = .91, NFI = .92, TLI = .92, CFI = .94, RMSEA = .09(90% CI = .07, .10), 위축된 행동 모형, $\chi^2 = 156.62(df = 56, p < .001)$, $\chi^2/df = 2.80$, GFI = .93, NFI = .94, TLI = .95, CFI = .97, RMSEA = .07(90% CI = .06, .09) 모두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모형부터 살펴보면(그림 2),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beta = .23, p < .01$),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간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38, p < .001$),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eta = .39, p < .001$).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15, p < .01$). 반면에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중상관자승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은 함께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25.3%를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의 23.3%를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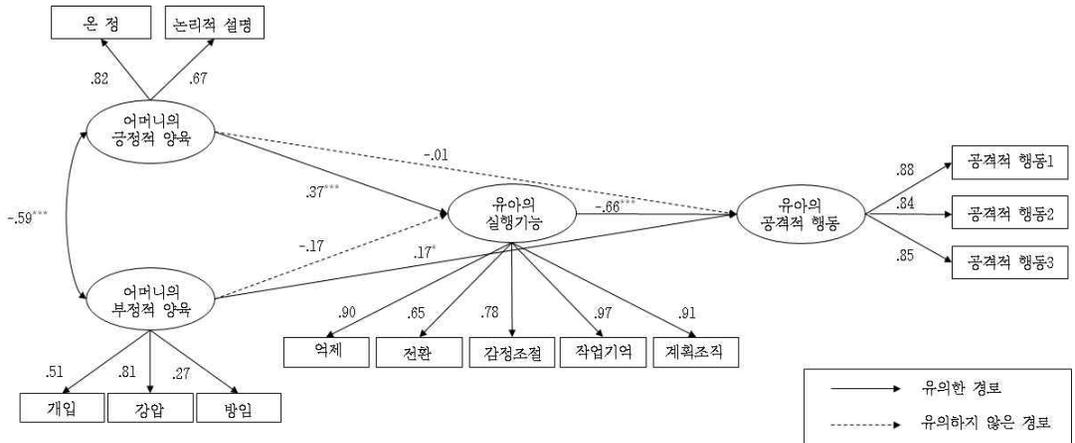
공격적 행동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eta = .17, p < .05$),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37, p < .001$),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eta = -.66, p < .001$).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고자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24, p < .01$). 반면에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중상관자승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은 함께 유아의 공격적 행동의 53.8%를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의 24.2%를 설명하였다.



주) 측정변인의 오차항과 내생 잠재변인의 잔차항은 그림의 간결성을 위하여 생략하였음.

** $p < .01$, ***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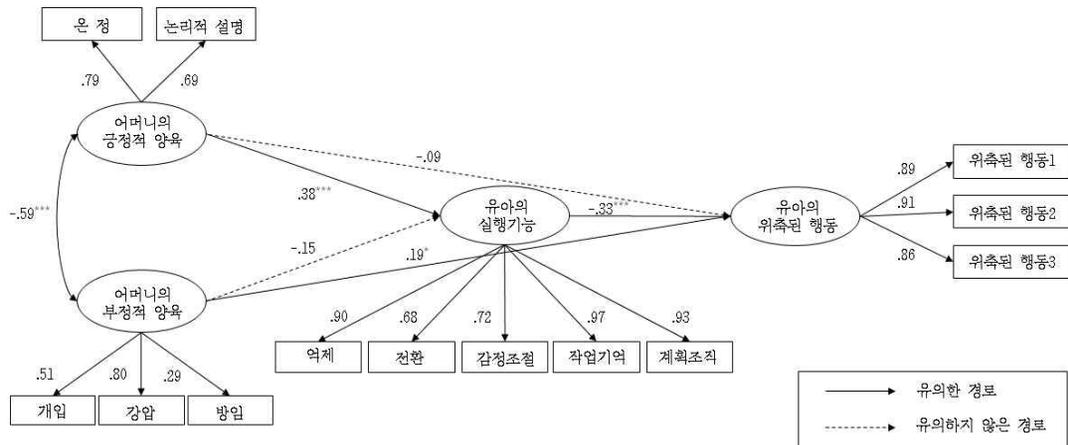
주) 측정변인의 오차항과 내생 잠재변인의 잔차항은 그림의 간결성을 위하여 생략하였음.

* $p < .05$, *** $p < .001$.

그림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마지막으로 위축된 행동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4),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위축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eta = .19, p < .05$),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38, p < .001$),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위축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eta = -.33, p < .001$).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

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위축된 행동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13, p < .001$). 반면에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다중상관자승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은 함께 유아의 위축된 행동의 25.6%를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의 23.9%를 설명하였다.



주) 측정변인의 오차항과 내생 잠재변인의 잔차항은 그림의 간결성을 위하여 생략하였음.

* $p < .05$, *** $p < .001$.

그림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위축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 299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실행기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는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및 위축된 행동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위축된 행동으로 분리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밝힌 다수의 선행 연구들(서소정, 2006; Blandon, Calkins, Grimm, Keane, &

O'Brien, 2010; Spinrad et al., 2007)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어머니가 유아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할수록 유아가 또래에게 인기가 많으며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나지혜, 2012; 홍계옥, 2001)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장영애, 이영자, 2009; 정경화, 2004)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적 행동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혜정, 2014; 박미진, 강지현, 2012)과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적 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Joussemet et al., 2008; Christopher, Saunders, Jacobvitz, Burton, & Hazen, 2013).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위축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위축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위축된 행동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중훈, 성지현, 2014; 유숙경, 이승희, 2012; Williams et al., 2009)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위축된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권수진, 오세니, 이상희, 2016; Bayer, Sanson, & Hemphill, 2006).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보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위축된 행동에 더 유의미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이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McLeod et al., 2007)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긍정적 사회적 행동인 친사회적 행동에만,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부정적 사회적 행동인 공격적 행동과 위축된 행동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모델링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유아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했던 방식대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특정한 사회적 행동을 표출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Vinden(2001)은 유아가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에서의 모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비교하여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중 개입과만 관련이 있었지만, 이외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모두 세 가지 측면의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이 한 모형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공격적 행동과 위축된 행동에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더 강조되었을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실행기능이 함께 포함되었을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것이므로, 실행기능이 영향력을 발휘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약화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고, 공격적 행동과 위축된 행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실행기능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적 역할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모형에서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실행기능을 보였지만,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실행기능과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이윤정 등, 2014; Bernier, Carlson, Deschênes, & Matte-Gagné, 2012; Bernier et al., 2010; Fay-Stammback, Hawes, & Meredith, 2014)을 지지한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점차 자신의 사고와 행동까지 조절해나가기 때문에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황혜련, 송현주, 2013; Graziano, Calkins, & Keane, 2011)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Hughes와 Ensor(2009)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보다는 어머니의 비계설정수준이나 가족환경요인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안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다는 점과,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행동 모두 유아의 실행기능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긍정적 양육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이기 때문에, 모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유아의 실행기능에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부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높은 수준의 실행기능을 보이는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고, 공격적 행동이나 위축된 행동은 덜 보였다. 이는 유아의 실행기능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한 선행연구들(Blair & Razza, 2007; Diamond, 2013; Espy, Sheffield, Wiebe, Clark, & Moehr, 20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행기능이 높은 유아는 타인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잘 활용하며, 갈등상황에서도 적응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잘 억제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져서 공격적 행동이나 위축된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기 동안 빠르게 발달하는 실행기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보이도록 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및 위축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경우에는 실행기능으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한 선행연구들(공영숙, 임지영, 2012; Sulik et al., 2015)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애정적 표현을 많이 하고 논리적 설명을 통한 합리적 통제를 제시할 경우 유아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실행기능이 발달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며,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환경적 요인인 양육행동과 더불어 유아의 실행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더불어 유아의 실행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모든 문항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동하였을 수 있으며, 변인 간 과잉 상관성이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및 위축된 행동 각각에 대해 모형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및 위축된 행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 아동 면담이나 관찰, 교사보고 등 다중방법과 다중보고자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경로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질문지를 통하여 측정하였는데, 실행기능의 경우 실험실 상황에서 과제수행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연구들에서 질문지를 통해 측정된 실행기능과 과제수행을 통해 측정한 실행기능 간 낮은 상관을 보고하고 있지만(Toplak, West, & Stanovich, 2013),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과제수행을 통해 실행기능을 측정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의 주체로 어머니만 살펴보았는데, 최근 부모공동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부모 외에도 조부모, 도우미 등의 양육조력자가 다양해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유아의 실행기능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조부모 등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유아기 사회성 발달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과거에는 유아의 부정적 사회적 행동에 보다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특성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고 있다(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의 유아들에게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하고 유아의 실행기능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긍정적 사회적 행동의 증진에 기여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유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하고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위축된 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행기능과 위축된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실행기능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실행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유아의 실행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남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권수진, 오새니, 이상희 (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변인 연구: 유아변인, 어머니 변인, 또래관계 변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4), 385-406. doi:10.22155/JFECE.23.4.385.406
- 권연희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영숙, 임지영 (2012). 유아의 기질, 어머니 양육태도,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 문제행동 및 친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교육**, 21(4), 135-152.
- 김녹현, 정영주, 차선희 (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4(2), 89-121.
- 김중훈,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문제행동 개인차와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6), 391-410. doi:10.18023/kjece.2014.34.6.017
- 김혜정 (2014). 만 4-5세 유아의 문제행동 예측 변인 연구; 가족특성, 유아기질, 어머니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지혜 (2012). 어머니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현, 신나나 (2017).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8(6), 17-33. doi:10.5723/kjcs.2017.38.6.17

- 박남심, 송승민, 엄희경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2), 161-178. doi:10.14698/jkce.2020.16.02.161
- 박명호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 강지현 (2012).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 연구**, 28(4), 331-352.
- 서소정 (2006).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의 요구전략, 언어발달, 어머니의 친사회성에 관련된 양육신념 및 사회화전략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287-310.
- 서정은, 박혜원 (2011). 아동의 정서지능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장애학회지**, 2(1), 99-127.
- 신은수 (2005). 3, 4, 5 세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과 가장놀이, 언어의 표상 능력, 실행기능, 그리고 중앙통합 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1), 65-90.
- 우수정 (2016).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41-55. doi:10.14698/jkcc3.2016.12.02.041
- 유란희, 김선희 (2017).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8(2), 67-79. doi:10.5723/kjcs.2017.38.2.67
- 유숙경, 이승희 (2012). K-CBCL 1.5-5와 Gottman의 양육방식 유형에 의한 유아의 정서행동문제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8(2), 1-22.
- 이미현 (2009).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0(2), 89-101.
- 이선희 (2012).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26. doi:10.7466/JKHMA.2014.32.1.13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특성: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doi:10.22257/kjp.2016.06.35.2.327
- 장영애, 이영자 (2009).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19-629.
- 정경화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인기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기주 (2015).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과 모의 상호작용 양상 및 특성 간 관계. **유아교육연구**, 35(2), 117-141.
-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 161-177.
- 황혜련, 송현주 (2013). 아동기 실행기능과 부모양육태도. *재활심리연구*, *20*(2), 149-167.
- Bayer, J. K., Sanson, A. V., & Hemphill, S. A. (2006). Parent influences on early childhood internalizing difficulti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6), 542-559. doi:10.1016/j.appdev.2006.08.002
- Bernier, A., Carlson, S. M., Deschênes, M., & Matte-Gagné, C. (2012). Soci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early executive functioning: A closer look at the caregiving environment. *Developmental Science*, *15*(1), 12-24. doi:10.1111/j.1467-7687.2011.01093.x
- Bernier, A., Carlson, S. M., & Whipple, N. (2010). From external regulation to self-regulation: Early parenting precursors of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81*(1), 326-339. doi:10.1111/j.1467-8624.2009.01397.x
- Blair, C., & Razza, R. P. (2007). Relating effortful control, executive function, and false belief understanding to emerging math and literacy ability in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8*(2), 647-663. doi:10.1111/j.1467-8624.2007.01019.x
- Blandon, A. Y., Calkins, S. D., Grimm, K. J., Keane, S. P., & O'Brien, M. (2010). Testing a developmental cascade model of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and early peer accepta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4), 737-748. doi:10.1017/S0954579410000428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doi:10.1177/0049124192021002005
- Christopher, C., Saunders, R., Jacobvitz, D., Burton, R., & Hazen, N. (2013). Maternal empathy and changes in mothers' permissiveness as predictors of toddlers' early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A parenting intervention stud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6), 769-778. doi:10.1007/s10826-012-9631-z
-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doi:10.1037/0012-1649.36.4.485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amond, A. (2013). Executive func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 135-168. doi:10.1146/annurev-psych-113011-143750
- Eisenberg, N., Fabes, R. A., & Spinard, T. L.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646-718). New York: Wiley. doi:10.1002/9780470147658.chpsy0311
- Eisenberg, N., & Valiente, C. (2002). Parenting and children's pro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edition)* (pp. 111-142). Mahwah, NJ: Erlbaum.
- Espy, K. A., Sheffield, T. D., Wiebe, S. A., Clark, C. A., & Moehr, M. J. (2011). Executive control and dimensions of problem behaviors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1), 33-46. doi:10.1111/j.1469-7610.2010.02265.x
- Fay-Stammach, T., Hawes, D. J., & Meredith, P. (2014). Parenting influences on executive function in early childhood: A review.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8*(4), 258-264. doi:10.1111/cdep.12095
- Gioia, G. A., Isquith, P. K., Guy, S. C., & Kenworthy, L. (2000). Test review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 *Child Neuropsychology*, *6*(3), 235-238. doi:10.1076/chin.6.3.235.3152
- Graziano, P. A. (2009).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hot" executive functions across early childhood: Contributions on maternal behavior and tempera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North Carolina, USA.
- Graziano, P. A., Calkins, S. D., & Keane, S. P. (2011). Sustained attention development during the toddlerhood to preschool perio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maternal behaviour.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0*(6), 389-408. doi:10.1002/icd.731
- Green, S., & Baker, B. (2011). Parents' emotion expression as a predictor of child's social competence: Children with or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5*(3), 324-338. doi:10.1111/j.1365-2788.2010.01363.x
- Hart, C. H., Newell, L. D., & Olsen, S. F. (2003). Parenting skills an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hood. In J. O. Greene, & B. R. Burlison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 (pp.753-7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ughes, C. (1998).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ers: Links with theory of mind and verbal abilit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6*(2), 233-253. doi:10.1111/j.2044-835X.1998.tb00921.x
- Hughes, C. H., & Ensor, R. A. (2009). How do families help or hinder the emergence of early executive func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9*(123), 35-50. doi:10.1002/cd.234
- Isquith, P. K., Gioia, G. A., & Espy, K. A. (2004).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 children: Examination through everyday behavior.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6*(1), 403-422. doi:10.1207/s15326942dn2601_3
- Joussemet, M., Vitaro, F., Barker, E. D., Côté, S., Nagin, D. S., Zoccolillo, M., et al. (2008). Controlling parenting and physical aggression during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79*(2), 411-425. doi:10.1111/j.1467-8624.2007.01133.x
- Izard, C., Stark, K., Trentacosta, C., & Schultz, D. (2008). Beyond emotion regulation: Emotion utilization and adaptive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2*(3), 156-163. doi:10.1111/

- j.1750-8606.2008.00058.x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olb, B., Mychasiuk, R., Muhammad, A., Li, Y., Frost, D. O., & Gibb, R. (2012). Experience and the developing prefrontal cortex.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2), 17186-17193. doi:10.1073/pnas.1121251109
-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5), 1579-1601. doi:10.1111/1467-8624.00366
- LaFreniere, P. J., & Capuano, F. (1997). Preventive intervention as means of clarifying direction of effects in socialization: Anxious-withdrawn preschoolers cas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3), 551-564. doi:10.1017/S0954579497001302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 children ages 3 to 6 years: The short form (SCBE-30). *Psychology Assessment, 8*(4), 369-377. doi:10.1037/1040-3590.8.4.369
- Lucassen, N., Kok, R., Bakermans-Kranenburg, M., van Ijzendoorn, M. H., Jaddoe, V. W. V., Hofman, A., et al. (2015). Executive functions in early childhood: The role of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practic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489-505. doi:10.1111/bjdp.12112
- McLeod, B. D., Wood, J. J., & Weisz, J. R.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2), 155-172. doi:10.1016/j.cpr.2006.09.002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2010).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doi:10.1037/0012-1649.24.6.807
- Rubin, K. H., & Burgess, K. (2002).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ition). Volume 1* (pp.383-41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eligman, M. E.,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doi:10.1037/0003-066X.60.5.410
- Spinrad, T. L., Eisenberg, N., Gaertner, B., Popp, T., Smith, C. L., Kupfer, A., et al. (2007). Relations of maternal socialization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1170-1186. doi:10.1037/0012-1649.43.5.1170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doi:10.1207/s15327906mbr2502_4
- Sulik, M. J., Blair, C., Mills-Koonce, R., Berry, D., Greenberg, M., Family Life Project Investigators, et al. (2015). Early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 Longitudinal mediation through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Child Development*, 86(5), 1588-1603. doi:10.1111/cdev.12386
- Toren, P., Sadeh, M., Wolmer, L., Eldar, S., Koren, S., Weizman, R., et al. (2000). Neurocognitive correlates of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4(3), 239-247. doi:10.1016/S0887-6185(99)00036-5
- Toplak, M. E., West, R. F., & Stanovich, K. E. (2013). Do performance-based measures and ratings of executive function assess the same constru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2), 131-143. doi:10.1111/jcpp.12001
- Vinden, P. G. (2001).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nd: A comparison of Korean American and Anglo-American families. *Cognitive Development*, 16(3), 793-809. doi:10.1016/S0885-2014(01)00059-4
- Williams, L. R., Degnan, K. A., Perez-Edgar, K. E., Henderson, H. A., Rubin, K. H., Pine, D. S., et al. (2009). Impact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parenting style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early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8), 1063-1075. doi:10.1007/s10802-009-9331-3
- Zelazo, P. D., & Müller, U. (2002). Executive function in typical and atypical development. In U. Goswami (Ed.), *The Wiley-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pp. 574-603). Malden, MA: Wiley-Blackwell Publishing.

논문투고: 20.08.17
수정원고접수: 20.09.18
최종게재결정: 20.10.07